기만작전명 '개구리'

(출8:1~15)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만작전명 '개구리'>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기만작전명 개구리'
적을 속이는 작전이 기만작전이고, 그 작전명이 개구리입니다.
최근에 역사적으로 기억될만한 아주 큰 기만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1991년에 걸프전이 개시되었을 때에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지상전 한판을 기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 사람들이나 미디어 방송에서도 기대 받으며 거명이 되었던 다국적군의 작전이 하나 있었는데, 쿠웨이트 상륙작전입니다. 쿠웨이트 해안에 이미 미국해병대 17,000명이가 있었을 때입니다.
특별히 뉴스위크지에서 대서특필을 하며 해병대의 쿠웨이트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크게 보도했는데, 이유는 쿠웨이트에 상륙을 했을 때에 이라크군이 쿠웨이트의 유전 등을 지키기 위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다국적군으로서는 이라크 본토를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지만, 다국적군으로서도 쉽게 감행할 수 없는 이유는, 인천상륙작전이나 노르망디상륙작전에서처럼 해변으로 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아군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 생각한 것이 17,000명의 해병이 상륙작전을 시행하는 것 대신에 네이비 씰(United States Navy SEALs)이라고 하는 미해군특수부대의 15명으로 이루어진 한 소대를 투입해서 이라크 해변으로 상륙하게 합니다. 15명이 상륙을 시도했는데 해변에 도착한 것은 6명밖에 없습니다. 그 6명이 해변을 따라서 폭탄을 쭉 설치하고 다 도망 나온 후에 먼 곳에서 시간을 기다렸다가 폭

탄을 터트리며 쿠웨이트에 다국적군이 상륙하는 것처럼 기만작전을 폈는데 이게 먹혔습니다. 이라크군이 무려 2개 사단을 쿠웨이트 해변에 배치하므로 이라크 본토에는 구멍이 뻥 뚫리게 되어서,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부근에서 일어난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지상전이 너무 싱겁게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군사전문가들은 인천상륙작전 이후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상륙작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상륙작전이 1개 소대에 의해 실행된 기만작전이었는데, 이렇게 기만작전은 기만당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치명적인 것이고, 이것을 성공시키는 이편의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작전이 바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지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전쟁 속에서도 이런 기만작전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재앙을 우리가 읽었는데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을 대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재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입니다. 이유는 출애굽을 위해서 일어난 열 가지 재앙을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도 다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창2: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은 이미 재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나서 기쁨이 없는 땅에서 기쁨을 찾아가며 살고 있고, 또한 3: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라는 말씀대로 먹고 사는 것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들어가면 정말 엄청난 재앙들이고, 그 의미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재앙들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애기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재앙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인간의 죄 값에 대해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주어질 수 있는 재앙의 의미가 별로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재앙 가운데에 살고 있으면서 재앙 의식이 제로인 상태로 살고 있는데, 재앙 가운데 있으며 이 재앙을 느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재앙이라는 것을 느껴야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재앙의식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 내가 재앙 가운데 처했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과 같이, 아담에 의해서 주어진 유전 죄에 의해서 쉽게 재앙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앙의식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기만작전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생명을 잃으리라'고 하신 것인데, 사탄은 '목숨을 잃지 않는다.'라고 속여서 목숨을 잃는 것을 생명을 잃는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즉, 목숨은 붙어있어도 생명은 없어진 것이므로 생명을 다른 생명으로 대치해버리고, 에덴 밖에서는 기쁠 수 없는데도 기쁠 수 있다고 속여 버립니다. 다 속아서 기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니 자기가 기쁨이 없는 곳에 산다는 재앙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사탄의 기만으로 이미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 재앙이 재앙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앙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앙 속에 머물면서도 재앙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기만하고 있는 기만작전을 벗겨내고 실상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실상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재앙의 실상을 이해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재앙보다 더한 재앙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난 결과가 재앙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만작전명 '개구리'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시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기만작전명 '개구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보내셔서 기만작전을 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작전명이 개구리였는데 그 기만작전을 벗겨내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월에서 10월까지 나일 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고, 그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이 되면 나일 강 하류에 강물이 범람하면서 쓸려 내려온 흙이 쌓이게 되면서 형성된 비옥한 삼각주에 물이 줄어들면서 커다란 개구리들이 떼를 지어서 수도 없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강의 범람에 의해서 비옥한 땅이 만들어졌는데, 애굽 사람들의 눈에 제일먼저 개구리들이 수도 없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지어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테니 그것이 개구리와 연결이 되고,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중에서 '헤크트'라는 여신이 있는데, 이 여신의 머리가 개구리입니다.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돼지꿈을 꾸기 원하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은 개구리 꿈을 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개구리 꿈을 꾸면 재수가 좋다 싶어서 풍요와 다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한 다산의 상징으로 여겼던 개구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개구리 재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든 인류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열망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 번성하는 것이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다 잘되는 것이고, 교회로 말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다 개구리로 상징되는 것인데, 개구리 재앙을 보내셔서 개구리들이 사람들의 침상에까지 올라왔고,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가서 개구리들이 밀가루랑 섞여버렸습니다. 개구리가 가득 들어와서 더러워진 밀가루로 떡을 해먹어야 하고, 침대에서는 개구리에 파묻혀서 잠을 자는데,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와 다산을 그렇게 좋아해서 그 개구리가 꿈에라도 보였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이렇게 부자 되는 것을 열망하고,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자면, 그 실상이 내가 개구리들이 득실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개구리로 범벅이 된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해먹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의 영적인 실상이 그렇다는 것인데,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속였습니다.
개구리들이 우글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돈 벌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돈이 많다고 좋아하는 것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마음을 꺾으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지만, 더 큰 의도는 선민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배운 것들이 주로 종교적 깨달음인데, 그 때의 종교는 학문과 경제와 문화와 정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가 개구리인 헤크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풍요의 신을 마음으로 쫓아간다는 것은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고, 개구리가 득실거리는 떡 반죽 그릇에서 밥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인간을 육적인 차원에 머물게 하고, 육적인 차원만 볼 수 있도록 가두어 놓고는 그 더럽고 추악한 일을 감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개구리 시체가 섞여있는 밀가루 반죽으로 음식을 해먹는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개구리 세 마리만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난리가 납니다. 조그만 청개구리가 아니라 주먹만 한 징그러운 왕 개구리들이 온 집안에 가득한데, 그게 바로 내가 돈을 좋아하는 상태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피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골3: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라고 하는데, 내 생명이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대상이 생명인 이유는, 생(生)을 명(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를 제시합니다. 나로 하여금 삶에서 기쁨을 얻게 하고, 살아갈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기만작전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생명이 되도록 지음 받은 인간들을 속였습니다. 목숨은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죽은 것이므로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집니다.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것인데, 사탄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속여서, 생명이 필요하면 하나님 대신에 애인을 사랑하면 되고, 자식을 사랑하면 되고, 배우자와 사업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속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자식을 생명처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남편에게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자식 하나 잘 키워서 삶의 보람을 느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자식을 마음에 집어넣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물이 피가 되었다는 것이고, 썩은 피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강물과 시냇물과 모든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물을 마셔야 하는 사람이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고, 피라는 것은 하루 이틀 지나면 썩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식, 가족, 나라 등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슬프고 잘 되면 기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생명을 찾아서 사랑하고 울고 웃고 사는 것이, 물 마셔야 될 때마다 썩은 피를 마시고 물로 씻어야 될 때마다 썩은 피로 씻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상황으로부터의 시각을 물리적인 세계 안에 가두어 놓고, 마음 놓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친 것이 사탄의 기만작전인데, 거기에 다 속아서 하나님 대신 자식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알고 있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피 재앙도 개구리 재앙도 사탄에 의해서 수행되는 기만작전을 벗겨내시는 것으로, 내가 원래 영적으로 그런 재앙 가운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시

는 겁니다.
애굽에서 배운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재앙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기만작전에 속아서 이게 재앙인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깨달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하는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선민들이 지금의 상황이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시하신 복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풍요와 다산을 원해서 부자가 되고 싶고 번성하기를 원하면,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 내가 지금 개구리 침대에서 자고, 개구리 시체를 반죽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닫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못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풍요의 다산을 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와 다산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아브라함 입에서 단 한 번도 자손이 번성하게 해달라거나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사업이 번성하게 해달라거나 우리 교회가 번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브라함은 해본 적이 업습니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번성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부자 됨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이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만작전에 속아서 다들 번성과 번영을 기원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개구리에 파묻혀서 잠을 자는 것이고 개구리가 섞인 떡을 만드는 것처럼 더럽고 끔찍하고 토할 일인지도 모르고 부자 되기를 원하고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번성과 번영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허락되는 만큼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눈곱만큼도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안 되는 것은, 개구리 침대에서 자는 것이고 개구리 떡을 해먹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좀 돈이 더 생겼으면,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번성했으면…'라고 하는 요구는 강렬한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수 없이 많은 자기계발서와 책들이 나오고 강단에서의 설교들이 조장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강렬한 본능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번영과 다산에 대한 욕구를 죽여야 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번성과 다산을 향하던 마음을 다 모아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께 드려져야 하는

데 그럴 때에 재앙이 물러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개구리 재앙은 우리가 이미 당하고 있는 형편이고 현실인데, 영적인 일이 다보니 육적인 현실이 전부인줄로만 알고 사는 인간들에게는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 보이질 않는 장막을 걷어내시느라고 육적인 현실에 개구리의 재앙을 투입하시는 것입니다.
피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면 빨리 중단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썩은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자식 자체가 썩은 피가 아니지만 내가 자식을 마음에 담고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물을 마셔야 사는데 썩은 피를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이고, 이미 재앙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육체의 현실은 다 없어질 것이고, 영적인 현실은 영원히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깨달으라고 재앙이 주어지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임하고 있었던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을 마련해주셨으니, 이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번영과 다산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번영과 다산에 열망하는 것 자체가 재앙인 줄 알고, 그 재앙으로부터 십자가를 붙잡고 빠져 나오기만 하면 거기가 바로 성공의 자리이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나는 모세의 막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악해서 나로 춤추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재앙 가운데에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육적인 현실에 재앙을 주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 비참한 모습이 이미 내가 거하는 재앙이라는 것을 믿고 동일시 할 때에 우리는 재앙에서 빠져나올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부터의 도주가 출애굽이 아니라 출재앙입니다. 출재앙의 삶을 매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붙잡고 가짜 생명의 재앙으로부터, 가짜 풍요와 다산의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